

한민족 역사 바로알기

## 고조선은 ‘3000년 전 단군의 후손들’이 세웠다

한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의 역사책에 BC 2300여년경 고조선을 단군이 아사달(지금의 평양)에 세웠다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인 BC 1000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성립은 청동기문명을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 역사학적으로 청동기시대 이전에 국가가 세워진 경우가 하나도 없으므로 고조선이 설립되었다고 하는 BC 2300년경은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므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단군이 실존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왕조는 권위가 있으며 민족도 위대하다’는 생각 때문에 건국 연도를 1800년이나 빠르게 잡았다고 말하면서 단군을 상상의 인물로 단정하고 있다(‘고조선 사라진 역사’, 성석제 저, 동아출판사 참조).

단군은 아곱의 5번째 아들 ‘단’이다

고조선의 건국 연도와 단군이 실존인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이처럼 서로 다르다.

반면 승리제단에서는 단군은 실존인물이며, 아곱의 5번째 아들이라고 1981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단군이 성경상에 기록된 ‘단’이며, 후손들이 ‘단’이라는 이름 뒤에 임금 군(君)을 붙여 단지파의 첫 조상에 대한 경외(敬



고조선은 청동기시대 BC1000년경 세워졌다(사진. 청동기 대표 유물 비파형 동검)

畏)의 마음을 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이 이스라엘에서 잊어버린 단지파의 후예라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을 제시하였다. 그 와당에는 히브리어가 써여 있는데 히브리어가 기록된 와당의 발견에는 신의 계시가 있어 놀랍다.

대동강변 출토된 와당에 히브리어 써여 있어

승리제단을 설립한 구세주 조희성 선생은 1981년 설교 중 “바울관에 가면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장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문자가 써여 있으니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였고 “청년들이 바울관을 찾아가서 그 기와장 사진

을 찍어서 서울대 신사훈 박사에게 가서 거기 써여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신사훈 박사는 고대 히브리어로 “도착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오염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뜻의 글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리제단에서는 위와 같은 신사훈 박사의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권위있는 학자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러다 인류 문화 고고학회 한강현 부회장이 2008년 3월 14일 이스라엘 바아 일란 대학교(Bar Ilan University) 고대 성경 히브리어 전문가 그린슈타인(Ed. Greenstein) 교수를 만나 그로부터

대동강변에 출토된 와당의 문양이 고대 히브리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린슈타인 교수는 고대 히브리어에 관한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서 와당의 글자는 BC 8~6세기에 사용된 글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하였다

우지 마노르 전 이스라엘 대사 한민족이 단지파일 가능성 있다고 밝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한 우지 마노르 씨는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일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대왕국 시절 12개 부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니다. 나중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미스터리예요. 그 ‘사라진 부족’의 성이 단(Dan)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 아닙니까. 재미있죠?”(2005. 8. 1. 조선일보)

단군은 애굽(이집트)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손들이 한반도로 와서 고조선을 설립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생활 할 때 ‘단’ 즉 단군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사람들은 아곱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중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삼손장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전에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주시켜 한반도까지 오게 하였고, 약 3000년 전에 한반도에 고조선을 건립하였다고 구세주 조희성 선생은 말씀하셨다.

이것은 청동기문명은 중동지역→지중해지역→유럽→우랄산맥→시베리아→요동지방→한반도로 파악하는 것과 일치하며,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는 BC 1000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통설과도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민족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며, 단군은 성경상 아곱의 5번째 아들인 ‘단’으로서 실존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조선은 BC 1000년경에 대동강변에 건국되었으며, 고조선 시대 이전은 이스라엘 역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긴자 구세주께서 가지고 있는 신의 능력으로 밝혀낸 우리민족의 뿌리 역사를 학자들이 빨리 밝혀내기를 고대해본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7)

## “억 만 분의 일도 마귀에게는 걸을주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온 몸인 고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여지없이 낙오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린 자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마귀 소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한 마디도 들으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걸렸다가 되는 것이요, 우상에게 절했

다가 되는 것이다. 억 만 분의 일도 마귀에게는 양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체면이나 위신이나 인정사정을 끼어서 꼬이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인정사정 두지 말고 잘라버려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마귀는, 죽이는 심정으로, 부수는 심정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다.

억 만 분의 일도 걸을 주면 여지없이 음란죄를 지었다가 되는 것이다.\*

## 구도의 길

## 참견하는 것도 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다. 그는 남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콩 보라 팔 보라 한다. 그러다보니 남의 일에 왜 참견하느냐고 핀잔을 듣는 때도 있다. 일이 꼬일 때는 자칫 원망을 듣기조차 한다. 슬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신의 성격을 탓해야 할까?

자유율법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다.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야 하니 그 사정에 동참하여 이런 저런 참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견하는 음란죄일까?

우리 제단에 독거노인이 여러 분 계신다. 그분들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거나, 공과금을 내려 가거나, 이사를 하거나 등등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에 그분들을 도와드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간혹 그분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약간의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쌍방간 약간 언짢은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자유율법으로 볼 때 도와줄 때도 그 선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할 일이 분명 있다.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 선을 넘으면 참견하는 음란죄가 된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다. 개인의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분이다. 이 책은 자유율법의 일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게. 그는 말한다. “모든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대부분 타인의 일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혹은 자신의 일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나의 일과 남의 일을 분리하여 침범을 못하게 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일독을 권한다.\*

## 신간 소식

## 〈불행한 선각자 조희성의 참모습〉발행



조재석 변호사가 편집문을 발췌, 책을 펴냈다

구세주 조희성 선생의 재판에 변론을 맡았던 조재석 변호사가 책을 펴냈다. 조 변호사는 조희성 선생을 무죄로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신데 조희성 선생의 재판이 너무 억울하게 매도되었고, 일반 사람들에게 조희성 선생의 진면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자 담당 변호사로서 자신이 본 조희성 선생의 참 모습을 알리기 위하여 〈불행한 선각자 조희성의 참모습〉을 펴내게 되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구세주의 재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한 변호사로서 “1심법원이 법이란 미명 아래 불행한 선각자 조희성에게

얼마나 몸짓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2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극히 일부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선각자의 진정한 모습을 언급하는 데는 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조희성 선생이 “1심에서 사형을 받을 때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을 때나 한결같이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인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 변호사는 판결문을 그대로 옮긴 후 중간 중간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을 부기(附記)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편집하였다.\*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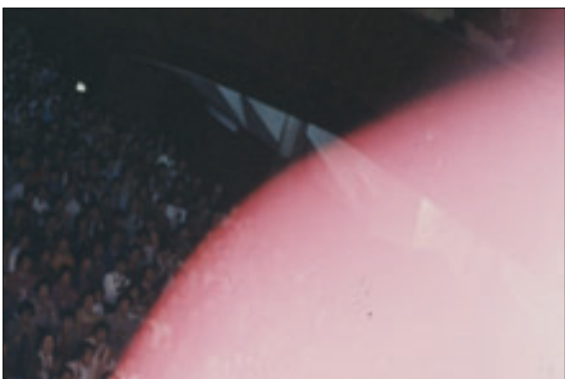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성탄절 행사시 내린 이슬성신 / 진해제단 서재봉 승사 촬영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